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총력 대응 익산시 창업 경진대회 성료

강임준 군산시장, SOC 예산·국가예산 증액 위해 국회 설득 방문

강임준 군산시장이 7일 새만금 SOC 예산 등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 증액을 위해 국회를 찾아 건의활동을 펼쳤다.

이날 강 시장은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 군산시 국가예산 증액을 위해 그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특히, 이번에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의 경우 정부의 계획을 신뢰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만금 기반 시설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또한, 신항만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예산 낭비로 이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 △연도항로 대체여객선 건조, △미성로~산북중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시는 새만금 SOC 예산과 주요 사업 예산들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발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올해는 새만금SOC 예산, R&D예산 삭감 등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가장 도전적인 해인 만큼 전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농촌협약 추진 본격화... 기본계획 수립 속도

총사업비 675억원 규모·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 진행

익산시가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여줄 농촌협약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농촌협약 세부사업들의 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농촌협약 사업은 총사업비 675억원 규모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가 협약을 맺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한일농촌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과 안건의 결정, 주민위원회의 협조를 빠르게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를 추진하는 남산면, 망성면, 여산면이다.

시는 지역주민들 간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령 및 계층별 교육·문화·보건·체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센터 조성을 위해 지난 1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주민위원회 대표, 자문위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과 안건의 결정, 주민위원회의 협조를 빠르게

면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립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한일농촌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오산면, 용안면)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주민 설문조사, 현장포럼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지 및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 점검... 시민 배심원단 본격 활동

익산시민들이 직접 정현을 익산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익산시장의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2023 시민 배심원단이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배심원단은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전화 면접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된 만 18세 이상의 익산시민 35명으로 구성됐다.

익산시는 오는 13일 열리는 첫 회의

에서 배심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약과 시민배심원제 이해를 위한 교육, 분임 토의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19일 정현을 시장 주재로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서는 민선 8기 92개 공약사업 중 진행이 부진하거나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상황 분석이 이뤄졌다.

그 결과에 따라 시는 추진이 불가하

거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배심원에게 심의 안전을 상정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말까지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한 뒤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배심원단 회의에서 나온 공약 조정안을 시장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익산시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겨울철 시민안전 대비 유관기관 간담회

군산시가 이번 겨울철 시민들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시는 7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겨울철 대비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기간 동안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했다.

간담회는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농업축산과, 복지정책과, 제9885부대 대대, 군산경찰서, 시 자율방재단, 시 협약체결 건설기계업체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기준,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방안,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사항 및 주요 추진사항, 자연재난 대비 협조요청 등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자연재난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자연재난이 인재가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서수면 등 상수도 요금 감면

군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 달 간 일반용, 선풍용, 목욕용은 30%, 공업용을 사용하는 수용가는 10% 감면했다. 또, 지난 7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은 이달 한 달 동안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의 100%를 감면한다.

이번 상수도 감면액은 소상공인 6억, 서수면 1억5,000으로 총 7억5,0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추진된다.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광역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해수부 수산물 물가 안정 가공·유통 현장점검

군산시가 해양수산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가공·유통 현장 등을 방문해 가격 점검 및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7일 시는 해양수산부와 해망동에 위치한 수산물가공거점단지에서 수협군산사업팀, '하우당', '발강도'를 방문해 수산물 가격 추이를 파악하고 수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을 점검했다.

거점단지는 크게 위판물류동, 수산물 가공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위판물류동

에는 수협 위판장, 군산사업팀이 위치하고, 수산물가공동에는 수산물 수출유망 가공업체 5개소가 위치해 있다.

현장을 방문한 해수부 최우석 수산정책실장은 "현재 수산물 가격이 꾸준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와 업체들이 물가 안정에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에 전념해 수출의 신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가공·유통 현장 등을 방문해 가격 점검 및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7일 시는 해양수산부와 해망동에 위치한 수산물가공거점단지에서 수협군산사업팀, '하우당', '발강도'를 방문해 수산물 가격 추이를 파악하고 수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을 점검했다.

거점단지는 크게 위판물류동, 수산물 가공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위판물류동

／군산=김판곤기자